

4월 22일(월) / 대상 24-26장

▶**내용요약:**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의 성전에서의 봉사 순서는 제비 뽑아 결정되었다. 나머지 레위 자손들도 장자 가문이던지 막내 동생 가문이던지 제비 뽑아 섬길 자가 결정되었다. 아삽의 아들들, 여두둔의 아들들, 헤만의 아들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도 성전의 각 문을 지켰으며, 고라와 므라리 자손 가운데 제비 뽑아 세워졌다.

▶**질문:** 아론의 자손들의 성전에서의 봉사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생각하기:**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역대기는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서를 지도하고 풍요롭게 하였다. 이에 역대기에서는 성전에서의 예배, 찬양, 봉사가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다.

4월 25일(목) / 대하 5-8장

▶**내용요약:**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겼다. 성전에서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대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였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였다.

▶**질문:** 솔로몬이 언약궤를 다윗 성에서 성전으로 옮기고자 할 때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옮겼는가?(대하 5장)

▶**생각하기:** 역대기는 솔로몬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면서 그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기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

4월 28일(주일) / 대하 17-20장

▶**내용요약:**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우상들을 제하였으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거릿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아람 왕의 군대와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하였다. 아합 왕은 이 전투에서 참 선지자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죽음을 맞이하였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세일 산에 거하는 주민들과 함께 유다를 쳐들어왔다.

4월 23일(화) / 대상 27-29장

▶**내용요약:** 다윗은 비록 자신의 재임 기간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 지지는 않았으나 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쓸 예물을 다윗이 솔선수범하여 드렸다. 이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기쁘게 헌물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시,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내어 놓게 하심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권이 이양되었다.

▶**질문:**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가?(대상 28장)

▶**생각하기:**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리더가 될 것을 권면하였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다. 역대기에서 다윗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 부분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담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4월 26일(금) / 대하 9-12장

▶**내용요약:**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노역을 줄이고, 메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포악한 말로 대답하였다. 북쪽 지파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단지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하자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 유다로 내려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는 일을 도왔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이 이를 본받았다.

▶**질문:** 솔로몬을 찾아와 마음에 어려운 질문을 하였으나 솔로몬이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사람은 누구인가?(대하 9장)

▶**생각하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녀는 가지고 온 보화를 아낌없이 솔로몬에게 주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다같이 기도하였다. 적군들 사이에 자중지란이 일어나 서로를 죽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던 유다의 군대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질문:**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아람 왕의 군대와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하다가 전사한 왕은 누구인가?

▶**생각하기:** 역대기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다.

4월 24일(수) / 대하 1-4장

▶**내용요약:**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 여호와와의 제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소원을 묻는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길 구하였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부귀, 영화, 장수 같은 것을 구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솔로몬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있었던 곳,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질문:** 일천 번제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기:**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한 일로 가장 먼저 손뼉을 수 있는 것은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직임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소원을 묻는 하나님께 자신의 직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였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교회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4월 27(토) / 대하 13-16장

▶**내용요약:** 아비야 다음 왕인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그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구스 사람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아사 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오자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여 바아사의 침입을 몰아냈다. 이 일은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일이었으며, 이 일로 재임 제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고, 제 41년에 죽었다.

▶**질문:** 남유다의 아비야 왕 때에 전쟁에서 패하고 다시 강성해지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와 친밀함으로 죽었던 북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대하 13장)

▶**생각하기:**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스 사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전투 시에는 아람 왕을 의지하였다. 이것은 그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전투에서 승리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적들에게 패하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의 강력함은 기본적으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가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개혁적인 일을 추진한 왕들의 치세 하에서는 언제나 나라가 강성하였다.